

삼성코닝, PDP용 유리 시장 진출!

프랑스 상고방과 기술도입 · 합작 협의 ... Asahi · NEC와 경쟁체제

브라운관유리 메이커인 삼성코닝이 PDP용 유리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프랑스, 일본기업들과 기술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코닝은 프랑스 상고방을 비롯해 일본의 Asahi Glass, NEG 등과 기술이전 및 합작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 상고방 관계자가 공장 예정부지를 둘러보는 등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코닝은 PDP용 유리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선발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특정기업과 결정적인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코닝은 미국 Corning과도 협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완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Asahi Glass나 NEG, 프랑스 상고방 등과 합작할지, 삼성코닝 단독으로 생산할지도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코닝의 PDP유리 사업 진출은 삼성전자(PDP TV)-삼성SDI(PDP 패널)-삼성코닝(PDP 유리)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차원의 PDP 사업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삼성은 PDP유리 사업 진출로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분야에서는 이미 삼성전자(LCD TV, 패널)-삼성코닝정밀유리(LCD 유리)로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상태이다.

삼성코닝은 생존 차원에서도 PDP 유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02년 브라운관 유리 세계시장 점유율 19%로 세계 3위를 차지했지만 브라운관 TV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1조1000억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삼성코닝은 2003년 5월 전자정보소재 생산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2007년 매출 2조원대로 거듭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는데, 2007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PDP 소재부품을 포함해 TFT-LCD 소재부품, 반도체 연마재용 나노파우더, 발광다이오드용 갈륨 나이트라이드(GaN) 등 4대 신사업 매출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PDP용 유리 시장은 Asahi Glass, NEG 등 일본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코닝-상고방-Corning의 합작이 성사되면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Asahi Glass가 2003년 5월 한진무역과 합작으로 구미에 한옥테크노글라스를 설립하고 PDP유리 후공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합작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 상고방은 자산규모 300억달러의 세계적인 전자재·유리재 생산기업으로 PDP유리를 양산하지 않고 기술개발에만 주력해왔다.

<Chemical Journal 2003/12/05>